

archetype : (근원이 되는)原型/(근본 틀)元型/(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)典刑

ἀρχή : 'beginning', 'origin' 'first cause', origin or root of things that exist.

In ancient Greek Philosophy, Aristotle foregrounded the meaning of arche as the element or principle of a thing, which although undemonstrable and intangible in itself, provides the conditions of the possibility of that thing.

τύπος : 자국, 흔적, 형(型 거푸집, 틀)

proptotype : 원형(原型)(archetype), 기본형; 시작품; 표준, 모범, 본(보기)(model); 【생물·컴퓨터】 원형. semantics, design, electronics, software programming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.

πρωτότυπον (prototyporn) : "primitive form",

πρωτότυπος (prototypos), "original, primitive", from

πρῶτος (protos), "first"

A prototype is designed to test and trial a new design to enhance precision by system analysts and users. Prototyping serves to provide specifications for a real, working system rather than a theoretical one.

generic ① 【생물】 속(genus)의; 속(屬)이 공통으로 갖는

γένος (genos, "race, stock, kin, kind"),

genre, gene(유전인자), genealogy(계보학, 계통학) genius(천성, 소질, 특질 (시대·사회·국민 등의) 특질, 정신, 경향, 풍조《of》; (인종·언어·법률·제도 등의) 특성, 특징, 진수(眞髓) etc.**

Platon의 두 번째 침대 - objet, 물질 physis = imitation of an archetype = imitation of an idea of a thing

meta-physics

poetry & painting etc. = illusionary arts 망상의 예술

cf. Jung의 심리학에서의 archetype = 집단 잠재의식(collective subconscious)의 (근원이 되는)原型/(근본 틀)元型/(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)典刑(archetype)

a priori : from, afer, since

a posteriori

a : from, afer, since

priori : first

posteriori : latter

a priori의 관점

경험적 지식은 임의적, 근거가 없고, 우연의 영역에 속한다

a posteriori의 관점

지식이 경험에 의지할 때 선험적 지식은 확실치 않고, 권위적이며, 관습적이며 전수받은 idea이거나, 습관에 불과하다

적어도 지난 200년간의 건축사 - 이 두 영역, 즉 두 가지 형태의 건축지식의 충돌

Descartes, Spinoza, Leibnitz 등 17세기의 사상가들의 철학의 기본 골격은 합리주의

즉 a priori를 기조로 함

즉 지식(scientia)은 a priori의 것 - innate idea(idée innée(F): idea innata(I & E):
angeborene Idee(D) 본유적/생득적 이데아)의 것에 소속

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명증성(évidence) 추구, 연역(deduction)의 엄밀성 추구, 기본
원칙/법칙에 관한 직관적 확신 등을 포함한다.

이와 같은 사항들은 17세기 아카데미의 학자들의 예술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.

Nicolas Boileau-Despréaux(1636 - 1711) : L'Art poétique(1674) 시작술, 시예술 - <시
학>

Jean-Philippe Rameau(1683 - 1764) : Traité de l'armonie réduite à ses principes
naturels(1722) 자연원칙으로 환원된 하모니론 - <화성론>

François Blondel : Cours d'architecture(1675).¹⁾ 건축강좌

이전의 이데아론에 근거한 이론들

15세기 - 최초로 건축이 과학과는 분리된 분야로 취급됨

고대의 권위에 의지

유일하게 남아있는 Vitruvius의 건축 10서 - 유일한 권위서

원래부터 있는 것, archetype이 되는 것이 자연이라면, 지식에 있어 경험 이전에 속하는 것
과 경험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을 자연개념과 연관지을 수 있는가?

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, 현대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:

건축이나 다른 인공물들은 자연법칙의 연장물,

그리고 여기에 모방 혹은 재현(representation)의 프로세스가 수반된다

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의 이 두 개념의 점진적 분리

구축적, 과학적 측면 : 이성의 영역

재현과 예술의 측면 : 감성, 감각의 영역

고전주의적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분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.

왜냐하면 진리와 미에의 접근은 이미 자연에 감추어져 새겨진 법칙에 의하기 때문이다.

[절대] 진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, 즉 하느님의 계시, 그의 누설에 의거한다면 이미 이전 사람
들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사상이 팽배.

그러므로 이 개념에 의하면 모든 진리란 하느님의 뜻을 재현(re-presentation)하는 것이다.

John Wood the Elder

건축의 과학적 측면 - 사변적, 형이상학적 측면

건축의 예술적 측면 - 특정한 causa에 관한 것,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필요에 적용하는
것.

여기서 건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

= causa finale(목적인)이다

≠ 작용인(causa efficiens)가 아니다.

1) Cours d'architecture enseigné à l'Académie royale d'architecture

(형상인 *causa formalis*; 목적인 *causa finalis*; 적용인 *causa efficiens*; 질료인 *causa materialis*)

현대적 시각에서 평가를 내린다면 John Wood는

과학 : 형이상학의 영역,

예술 : 실용적, 실리적, 본질적이 아닌 것, 우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.

Quatremère de Quincy(1755 - 1849) : 황소고집

Essai sur la nature, le but et les moyens de l'imitation dans les beaux-arts (자연에 관한 수상, 예술에 있어서 모방의 목적과 방법)

건축은 자연의 *idea*를 모방해야 한다

그가 주장하는 모방은 3가지 *caractère*를 지닌다

caractère essentiel : 어떤 속(*generic*) 가운데, 혹은 영구한 시간 속에서의 자연의 모방

caractère relatif : 어떤 특정한 문화, 시간 속의 자연(관)의 모방

caractère accidentel : 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시적인 카락테르

(cf. *caractère*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중 *genre*론으로부터 유래함)

그러나 17세기에 새로운 사조(思潮) 일어나기 시작- 새로운 합리주의의 생각이 밀려들어옴.

- 경험주의적 과학 + 개개인의 지성/이해력/사고력을 중시하는 태도 (≠ 보편 지성) 중시

- 위의 두 항목이 진리의 발굴에 중요한 역할.

a priori 지식과 *innate idea*(생득적 이데아)를 중시하는 태도, 시각에 의심과 불신의 눈길을 던지기 시작 → 맹렬한 도전

고대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도전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 → 증명의 문화로... (cf. 실증적 이자 과학적 고고학 등)

Qu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

- 생득적 *idea* 지지 그룹과 : *les anciens*

- 경험주의적 체험을 중시하는 두 그룹간의 격렬한 대립 : *les modernes*

이 중 생득적 이데아를 지지하는 그룹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, 그리고 관습적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뉨

관습적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- 점 점 더 취미(*taste, goût, Geschmack, gusto*) 지지 쪽으로 기울게 됨.

이러한 상황은 건축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분야에서도 동일한 양상.

Claude Perrault : 고전주의 주범의 건축이론 공격

고전 주범의 채용은 단순히 관습적인 것

음악분야 :

Giuseffo Zarlino(1517-1590)학파 : 화음은 수학적 법칙에 의거해야 한다

Vincenzo Galilei(1533-1591)학파 : 아름다움은 오로지 귀(청력)에 의한 것이다.

18세기 건축가들/예술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다음 두 가지를 화해시키려 함
합리주의의 a priorism, 그리고

취미 혹은 주관적 판단

- 그리고 그에 더해 인간 개인 존재는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룬다는 이론을 제기

ex. Charles-Etienne Briseux

자연은 언제나 동일한 지혜로써, 그리고 한결같은(uniforme) 방식으로 작용한다... 그로부터
귀와 눈의 즐거움은 우리의 체격과 유사한(analogue) 조화의 어울림(concordance
harmonique)으로부터 온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... 그리고 이 법칙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
예술생산에 해당한다.

Laquigier의 Essai sur l'architecture(1753)

좋은 양질의 건축(bon architecture)이란 타락하지 않은 마음과 눈에 자명하게 드러나야 한
다.

선험(a priori)의 이성은 경험주의적 체험과 감각으로써 승인/확증된다.

그럼으로써 innocent한, 훈육받지 않은 이성은 가장 이른 건축, 즉 시원의 건축이 지닌 진리
를 발견할 것이며, 더 이상 특정 고대 모델들에 눈을 던지지 않게 할 것이다.

하지만 아직도 여기서 이성과 진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전통의 순화에 매달려 있
다.

화가, 조각가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독트린에서 건축가의 임무는

- 자연의 불완전한 외모 뒤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

- 즉 다양하고 잡다하며, 건축사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한 외형으로 감추어진 유형(type)을 찾는
것

※ 건축이 완전한/온전한 자연현상처럼 다루어지고 있다.

다음 시간 :

Soufflot의 건축, 특히 Sainte-Geneviève 등 실질적 건축물 에 관해....